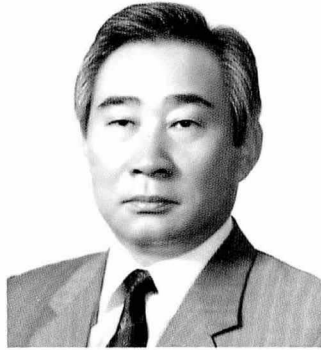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 대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회장 정 장 호

우리는 지금 격변의 한가운데 서서 새해를 맞이 했습니다.

지난 1년은 우리에게 무척이나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가 많았던 격동의 한해였습니다.

외적으로는 세계 경제 침체에 따른 선진 열강들의 무역 확대 정책으로 인한 새로운 경제질서의 개편으로 몸살을 앓았으며 내적으로는 문민정부의 출현으로 금융실명제와 2단계 금리자유화 조치가 단행됐고 쌀개방의 여파는 국민 정서 차원에서 개방의 불가피성과 국력의 한계성을 실감토록 했습니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맞이하는 94년은 우리 정보통신업계에 있어서는 다른 어느해 보다도 중요한 한해일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 시장이 전면개방되는 데에 따른 사업환경의 세계화등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예고되고 예상되었던 일긴 하지만 시장개방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진국과

기술력, 시장경쟁에서 피할 수 없는 생존 경쟁을 벌여야 할 어려운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서 정부는 정보통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기술의 표준화, 세계 금융상의 지원책, 수출지원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통신사업의 구조 조정을 통한 무한 경쟁 체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한 기술력 확보와 인력 양성을 통해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전략적 차원에서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의식의 변화와 목표개념을 재 설정하고 사업 추진 체계를 다각화 하는 등 전문화, 고도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한다면,

첫째, 정부의 정책입안에 기초가 되는 자료 수집과 조사 통계 분석등

을 통한 정책대안 제시와 대정부 건의 활동을 활발히 하여 정부와 업계 간의 대화 촉진은 물론 민관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아울러 민간기업의 장단기 경영전략 수립에 유용한 지표가 될 자료들을 공개해 회원사는 물론 정보통신 각 분야에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정보통신 활성화를 위한 산업환경 조성에 다각적인 노력을 집중할 생각입니다.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의 관계는 물론 대기업과 소기업의 역할 분담을 위해 서로 협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며 사업자의 사업영역확대를 위해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의 완화를 통해 새시장이 창출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통신망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상호접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계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여 반영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이해상충이나 공정성의 문제는 지속적인 것인만큼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협조방향으로 의견을 결집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세계화 되어가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와 국제협력 활동을 강화하고 국제 기술 표준화와 같이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수집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정보통신산업 분야의 국제 기구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년간 많은 변화와 난관에 부딪칠 때마다 현명하게 대처해온 경험을 갖고 있으며 잠재적인 저력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개방을 두려워한다거나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축에서 벗어나 당당히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역량과 지혜가 국가의 미래를 앞당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과 실천의 의지들은 회원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계정립이나 협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갑술년 새해를 맞아 하시는 일 모두 성취되길 바라며 협회가 하고자 하는 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